

‘지지부진’ 혁신도시 공사…나주 빛가람동 발전 막는다

공동주택 40% 차지 부영그룹…10년째 미착공·기초공사만 반복 인구 유입·상권 활성화 위해 공터 부지 본격 시공 촉구 목소리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터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공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착공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 내 미개발 아파트 부지를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10년째 기초공사만 반복하거나 미착공 상태로 방치중인 부지들이 도시 발전, 미관 등 다방면에서 도시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전체 부지(736만1000㎡) 중 현재 부영그룹이 소유한 부

지는 59만4783㎡에 달한다. 용도별로 공동주택 부지는 18만6882㎡, 상업용지 부지가 2만831㎡, 체육시설용지는 35만2294㎡, 문화시설용지가 3만4776㎡로 집계됐다. 더불어 부영이 임대 아파트로 준공을 마친 4개 단지(64개동), 4690세대의 부지를 포함하면 전체 부지면적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상 공급 예정 아파트 세대수로 보면 전체 1만7959세대 중 6999세대가 부영 그룹이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빛가람혁신도시 주택 건설에 참여한 7개사 중 단연코 1위다. 빛가람혁신도시 전체

가구 중 40%가량이 부영그룹이 준공한 건물에 거주하는 셈이다. 혁신도시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영그룹은 인구 유입세 등 도시 발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나주시로부터 기초 승인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난 부지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준공 계획을 세운 부지 3곳이 본격적인 시공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 빛가람동 한아름초등학교 인근 6만6470㎡ 규모의 부지에는 72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20층·11개동)을 짓기로 했지만, 지난 2021년 4월 나주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낸 뒤 3년째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부지의 길 맞은편 부지(6만4381㎡) 역시 지난 2021년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고, 7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23층·10개동)이 들어설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착공 상태인 실정이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미착공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 별다른 제제도 없다. 나주시 빛가람동 라온초등학교 맞은 편에 위치한 부지(5만 6031㎡) 역시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초기인 지난 2013년 12월, 지자체로부터 7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최초 승인 받았지만 땅을 파는 등 기초 공사에 돌입한 뒤 중단하기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재개해 현재는 골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에 들어선 투자자와 상가 역시 공사 진행이 수년째 진척되지 않자 대출 원리금 등 막대한 손실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지 오래다. 이밖에도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무상제공한 뒤 부영cc 잔여부지(35만 2294㎡)에

5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준공하기로 한 계획도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2년 3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 중 부영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주민 의견 등 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려한 바 있다. 이어 나주시는 올해 1월 해당 부지에 대한 조차계획을 촉구했으나, 부영측은 아직도 목록부담인 상황이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아파트를 준공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한 곳은 부영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까지 부영이 준공한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입주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유입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본격적인 시공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aT, 우간다와 농어업 발전·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약

농수산식품 교류 확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와 농어업 발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준진 aT 사장 과 버나드 아더 루지 대통령 특사를 비롯한 우간다 정부시찰단 등 관계자가 참석했고, 특사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 앞서 우간다는 스마트 축산 시스템 기술을 배우고, 선진 애그테크(Ag-Tech)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됐다. 우간다는 국가 전체 노동력의 70%가량이 커피, 어류, 콩, 차를 수출품으로 육성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불규칙한 강우량과 가뭄, 홍수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우간다는 향후 ▲농수산식품 교류 확대 ▲농수산식품 유통·물류 개선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준진 aT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이 범지구적인 농업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스마트 농업 기술과 정책적 협의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문한 우간다 정부와의 농어업 발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채용 비율 50% 확대해야”

전재수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범위 확대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범위도 지방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고교 졸업까지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도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의 무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약해 청년의 수도권 유출

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이 독려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의 유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내 학교 졸업생인 청년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지역인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목표 비율을 도입했다. 또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김경 켄텍 교수 ‘미국교육공학회 플래그십 학술지’에 논문 게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13일 “김경(사진) 교수가 교육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교육공학회 플래그십 학술지’에 단독저자로 논문이 최종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경 교수는 제목과 밑줄 긋기 등 글의 구성에 따라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김 교

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글의 구성에 따라 학습자의 지식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을 규명했다. 앞서 이같은 연구 주제는 글과 학습자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특히 제2외국어의 경우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변수가 다양해져 연구가 더 어려웠던 분야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글의 구성에 따른 학습자의 이해도 변화를 지식구조 네트워크로 시각화했고, 학습자와 글의 구성 간의 상

관관계를 시각적 규명 첫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 켄텍 교수는 “켄텍 ‘인공지능 ALC’ 강의실에 구현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식구조 시각화 연구의 권위자로, 학습자의 글 또는 음성을 통해 지식구조를 추출해 이해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기술은 지난 2021년 미국교육공학회(AECT) 최우수 개발상과 2022년 AECT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견학·체험 행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3일 “초·중·고등학생 30명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이동센터 3곳의 초·중·고등학생을 초청해 한국은행 견학 및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어려운 성장환경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초·중·고등학생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은행이 지역 경제를 위해 하는 일을 학습하고, 캔들 홀더를 만드는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한국은행과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손 손실 없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